

유에스텍서비스 한아름 대표회계사

어렵고 복잡한 한미 조세제도, 친절하고 신속한 상담으로 ‘불안’을 해소하다



올바른 정보와 정확한 판단, 세금문제 해결하는 원스톱 솔루션

최근 국제 세무·회계 분야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해외 금융계좌신고 의무제도(FATCA)’의 시행이다. 2014년 발효된 이 제도에 의해 한국 장기체류를 계획 중이던 미 영주권자들이 겪어야 할 불편과 자칫 발생할지 모를 벌금 부과 위험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복잡한 국제 세무·회계 업무에 대해 확실하고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유에스텍서비스(US TAX Service)’다. 유에스텍서비스의 한아름 대표회계사는 “사업적인 이유 혹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많은 분들이 자꾸만 바뀌는 과세 제도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하지만 사실 정확한 정보를 알고, 성실한 신고만 이행한다면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라며, “이에 저희는 FATCA, FBAR 등의 각종 세제와 관련된 정보와 이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적인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추후 발생할지 모를 다양한 문제를 예방, 해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에스텍서비스의 가장 큰 강점은 한국과 미국의 시스템 모두에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보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정 분야에만 특화된 여타 업체와는 달리 미국 세무법에도 정통한 한 대표는 보다 포괄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으며, 철저한 크로스체크와 크로스퍼런스 전략으로 합리적인 비용과 최소한의 시간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하는 등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해 수백여 명의 고정고객들을 보유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할 터”

오랜시간 한국과 미국의 회계시스템 및 세무에 관심을 가지며 업무를 수행해 왔다는 한아름 대표는 양국의 회계사 및 변호사들이 한미 조세협약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고 한다. 상대방 나라의 세금 환급시 적용되는 규칙 등을 고려하지 않고 처리한 탓에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하는 사례도 다수 경험했다는 그다.

그러한 경험 때문인지 한 대표의 자세에선 프로다운 자신감이 느껴진다. 끊임 없이 연구하고, 분석하며 누구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상세한 정보를 축적해왔으며, 이를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과 진단을 내릴 수 있다는 자부심에서다. 한 대표는 “회계사는 언뜻 생각하기에 책상 높이 쌓인 서류와 씨름하는 지극히 사무적인 직업 같지만, 실은 고객들이 맞닥뜨린 다양한 상황과 문제들을 해결해주기 위해 나서는 해결사라 볼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고객들을 만나 교류하고, 이야기를 듣는 것이 회계사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죠”라고 말했다. 이러한 생각에 항상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중시하며, 꾸준한 소통을 위한 커뮤니티 구축에도 공을 들이고 있는 한 대표의 업무방식은 실제 유에스텍서비스를 찾아온 고객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부분이다. 이들의 서비스를 이용했던 한 고객은 “한국에 미국 세금 신고를 도와주는 곳이 있는 줄도 몰랐었다. 어렵게 찾아왔는데 대단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해주는 것에 놀랐고, 백지 상태에서 마구



쏟아냈던 질문들에 끝까지 친절하게 답해주시고 안내해주셨던 것에 감사하다”라며 고마움을 표했다. 또 다른 고객은 “뉴스 보도나 주변 지인들의 말을 듣고 불안함에 걱정하던 중 유에스텍서비스를 만났다. 전문적인 지식과 체계적인 처리를 보며 일반인들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리라 느꼈다. 주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추천할 것이다”라고 말하기

도 했다.

한 대표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역할에도 부족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신념입니다”라며, “만약 고객에게 문제나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파악과 분석, 해결, 사후 처리에 이르기까지 확실한 도움을 제공할 뿐 아니라, 궁극적인 사항에 대한 자세하고 즉각적인 응답으로 고객의 성공을 돕는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라고 말했다. 언제나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다짐하는 유에스텍서비스와 한아름 대표의 앞으로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취재_ 임승민 기자